

anpanman museum

poem & märchen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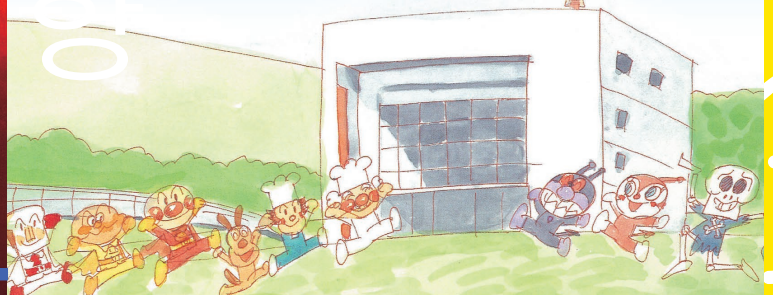


안판만 뮤지엄 호빵맨 박물관
詩とメルヘン 絵本館
시와 메르헨 그림책관

야나세 다카시의 고향

안판만 뮤지엄 호빵맨 박물관
고치현 가미시 가호쿠초는 호빵맨을 탄생시킨 아버지, 야나세 다카시의 고향. 이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호빵맨 박물관은 호빵맨을 좋아하는 모두의 마음속 고향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진 관람 순서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곳부터 뱅글뱅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관내의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호빵맨과 그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詩とメルヘン 絵本館
시와 메르헨 그림책관은 잡지 「시와 메르헨」의 창간 이후, 야나세 다카시가 계속 그려 온 표지 일러스트와 컷을 한곳에 모아 놓은 갤러리입니다. 작지만, 꿈과 기쁨, 사랑, 눈물, 그리고 정이 듬뿍 담겨, 호빵맨 박물관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야나세 월드]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한다고 말하자,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자, 기쁠 때는 많이 웃자. 그대로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의 갤러리입니다.



안판만 뮤지엄 호빵맨 박물관
고치현 가미시 가호쿠초는 호빵맨을 탄생시킨 아버지, 야나세 다카시의 고향. 이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호빵맨 박물관은 호빵맨을 좋아하는 모두의 마음속 고향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진 관람 순서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곳부터 뱅글뱅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관내의 여기저기에 숨어 있는 호빵맨과 그 친구들을 찾아보세요.



詩とメルヘン 絵本館
시와 메르헨 그림책관은 잡지 「시와 메르헨」의 창간 이후, 야나세 다카시가 계속 그려 온 표지 일러스트와 컷을 한곳에 모아 놓은 갤러리입니다. 작지만, 꿈과 기쁨, 사랑, 눈물, 그리고 정이 듬뿍 담겨, 호빵맨 박물관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야나세 월드]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한다고 말하자,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자, 기쁠 때는 많이 웃자. 그대로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의 갤러리입니다.

박물관을 탐험하자!



1F
정해진 관람 순서는 없습니다. 특수장치가 가득한 호빵맨의 세계를 즐기자!

1 현관
3층까지 천정이 뚫려 있어 야외무대를 연상케 하는 현관은 이탈리아의 중세도시 시에나의 캄포 광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박물관 기념품 가게에서는 호빵맨 상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오리지널 상품도 가득해요!

2 숭배복질 나무
[호빵맨 행진곡]이 흐르는 커다란 기계장치. 정시가 될 때마다 친숙한 캐릭터들이 얼굴을 내밀니다. 야나세 다카시의 그림 [숭배복질 나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3 AtoZ
A부터 Z까지 바닥의 패널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도 호빵맨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호빵맨의 손자국]도 있습니다.

4 호빵맨 대벽화
벽 일면 전체에 호빵맨과 그 친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아래의 호빵맨은 3살 정도 아이의 실물 크기와 같다. 호빵맨 옆에 나란히 서보세요.

5 호빵맨 시어터
(날아라! 호빵맨)의 과거 애니메이션 작품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등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근두근 콩닥콩닥.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여기에서 천천히 휴식을 취해보세요.



4F
야나세 다카시가 그리는 호빵맨의 세계를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를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그림책 원화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호빵맨
호빵맨이 순찰하는 틈틈이 모습을 나타낸다!! (밖에서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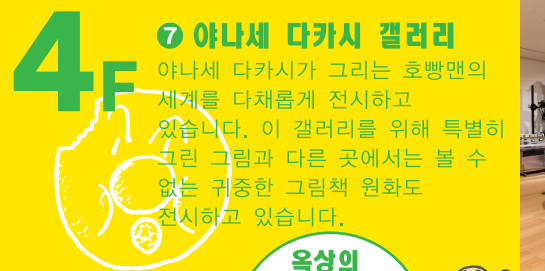
7 야나세 다카시 갤러리
야나세 다카시가 그리는 호빵맨의 세계를 다채롭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를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그림책 원화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8 명예관장실
야나세 다카시도 마을에 들어 했던 작고 아담한 명예관장실. 그림으로 그린 책장에 꽂힌 책의 제목들에도 주목하시길. 언뜻 보기에 명작인 것 같지만, 실은 어딘가가 다르답니다.

9 4층으로 가는 계단 엘리베이터
햇빛이 비치면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신기한 계단은 짙랑이를 모티브로, 밖으로 노출된 핑크색과 보라색의 도르래가 특징적인 엘리베이터는 세균만을 이미지화하여 배색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도어뷰도 꼭 한번 들여다보세요.

10 슬로프 전시실
수다를 떨고 있으면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벽에 여러 가지 장치가 설치된 작은 전시실. 막다른 곳의 문을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1 야외 디오라마
야나세 다카시의 그림 [야채마을에 들어가는 주먹밥맨]을 모티브로 만든 입체 디오라마. 디오라마 중에는 원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도 섞여 있으므로, 4층 갤러리에 있는 원화와 비교해 보고 어디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12 유리 수장고
호빵맨의 캐릭터 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난감과 봉제인형, 문구류, 의류 등, 지금까지 상품화된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호빵맨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자이언트 우당탕
세균맨이 개발한 높이 7m의 거대한 로봇이 서 있다!

박물관 기념품 가게
여기서만 판매하는 오리지널 상품도 있어요!

박물관 기념품 가게(1F)
여기서만 판매하는 오리지널 상품도 있어요!

박물관 기념품 가게
여기서만 판매하는 오리지널 상품도 있어요!



야나세 다카시 기념관에 오시는 길
[차] ○고치시 중심부에서 약 60분 ○고치로마 공항에서 약 40분 ○고치 자동차도로 난코쿠 I.C.에서 약 35분 [전철·버스] ○JR 도산선·도사야마다역에서 JR 버스 오토치선으로 갈아타고 약 25분 [호빵맨 뮤지엄 마에] 버스정류장 하차 바로.

개관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입장 마감은 오후 4시 30분까지) 매주 화요일 휴관
※7월 20일~8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개관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이 휴관일. 또, 3월 25일~4월 6일, 4월 29일~5월 5일, 7월 20일~8월 31일, 12월 24일~1월 7일 동안은 휴관하지 않습니다.

입장료

이름	야나세 다카시 기념관 공통		시와 메르헨 그림책관(별도)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와 보호자 1명까지 반액. ※기획전 개최 시는 요일설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일반	단체 (20명 이상)	일반	단체 (20명 이상)	
어른	800	720	450	400	
청소년	500	450	200	180	
어린이(3세~)	300	270	100	90	



야나세 다카시 기념공원
고치 특산 유자나무에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휴식공간. 야나세 토끼 동상도 있어요.

별관
1년에 1~2회, 장난감과 만화를 테마로 한 기획전전을 개최.

놀이기구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박물관 밖에도 나가보자. 잔디밭 광장에는 호빵맨 놀이기구도 있어요.

yanase takashi memorial hall
공익재단법인 야나세 다카시 기념 호빵맨 박물관 진흥재단
(781-4212) 고치현 가미시 가호쿠초 비라후 1224-2
[TEL] 0887-59-2300 [FAX] 0887-57-1410
<http://www.anpanman-museum.net/>





만화가의 꿈을 꾸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상경한 야나세 다카시는 고치 신문사에 근무하던 시절 동료였던 고야스 노부와 결혼.

1953~

도쿄에 상경한 야나세 다카시는 미쓰코시 선전부를 퇴직한 후, 프리 만화가로서 독립합니다. 주간 아사히의 만화상을 수상한 『보오 씨』와 샷포로 맥주의 광고 만화 『맥주의 왕』 등을 그렸지만, 크게 히트하지 못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무대연출, 잡지 편집, 텔레비전 출연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만능 탤런트라고 평판이 자자한 한편, 만화가로서는 오랫동안 무명인 채로 고뇌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 『손바닥을 태양에』입니다.



그림책 「호빵맨」 탄생



12화 중 1화에 호빵맨이 수록되어 있는 「12개의 진주」 (1970년 산리오 간행)

1969~

야나세 다카시는 1969년에 호빵맨의 원형이 된 단편 동화를 발표합니다. 그 후, 1973년에 프레벨관의 유아용 책에서도 「호빵맨」을 발표. 당시 호빵맨은 편집자에게도 안 좋은 평을 받았지만, 호빵맨에 대한 야나세 다카시의 정열은 식을 줄 모르고 몇 번이나 매체를 바꾸어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80년대에는 유치원과 보육원에서 인기에 불이 붙으면서, 1988년에는 애니메이션화 되어 TV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아라! 호빵맨」, 발해 찬 아저씨가 구운 얼굴로 다시 힘을 되찾은 호빵맨.



수장고
야나세 다카시의 회화 작품과 [시와 메르헨]에 관련한 작가의 작품 등 2,00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그려진 호빵맨의 얼굴 크기는 무려 9m!



「날아라! 호빵맨」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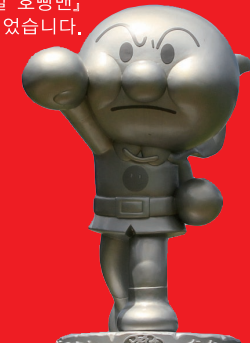


얼굴을 드는 호빵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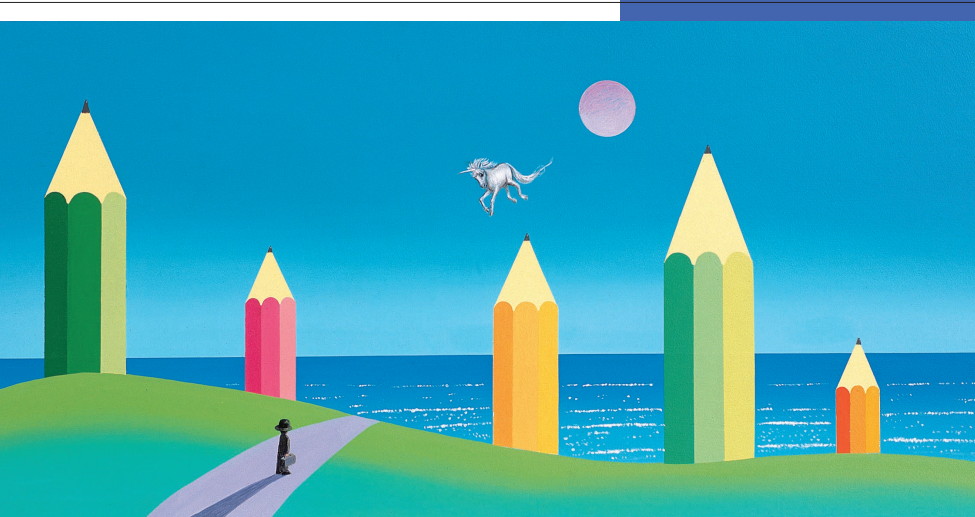
[시와 메르헨] 연재 래걸 호빵맨

월간 [시와 메르헨]에서도 1975년부터 어른용 만화로서 (연재 열혈 메르헨 래걸 호빵맨) 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호빵맨이 아니라 인기 없는 만화가 "야루세 나카스". 어떤 여배우가 "야나세 씨는 참 안타깝게 울리는(日:야루세나쿠 나카스) 사람이야" 라고 말한 한마디 때문에 "야루세 나카스"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977년에 「연재 열혈 메르헨 래걸 호빵맨」 (산리오 간행)으로 단행본이 발간되었습니다.

싸우는 호빵맨 상
발물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세원진 높이 3m의 동상입니다.



만화가의 그림책 모임



Pencil Peninsula



1972

야나세 다카시와 마에카와 가즈오가 구상해서 발족시킨 (만화가의 그림책 모임) . 어려운 규칙도 엄격한 심사도 없는, 단지 그림책을 좋아하는 만화가들이 모여 만든 자유로운 모임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그림책을 발표하지 않았던 야나세 다카시. 이 모임에서의 활동이 현재의 [그림책 작가 야나세 다카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잡지 「시와 메르헨」

1973

야나세 다카시의 또 하나의 창작활동은 잡지 「시와 메르헨」. 창간 때부터 30년간 모든 표지를 그렸으며, 편집도 직접 했습니다. 스즈키 미에키치가 창간한 잡지 「붉은 새」의 정신세계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서정의 세계를 창작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독자의 투고가 주체가 되는 잡지로, 이 잡지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수많은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와 시인이 배출되었습니다.



시와 메르헨 그림책관
야나세 다카시가 그린 잡지 「시와 메르헨」의 표지 원화 및 삽화를 비롯하여 시, 만화 등, 다채로운 야나세 다카시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2~3회 기획전도 개최. 「시와 메르헨」에 관련한 작가 및 국내외 그림책 작가 등의 원화전을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5월이 되면 바람이 술술 나무는 푸릇푸릇



깃 짜낸 물감 팔레트를 닮은 초여름의 나비

야나세 다카시 프로필

- 1919년— 월 6일 출생
도쿄 고등공예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도쿄 다나베제약, 고치신문사, 미쓰코시 선전부를 거쳐 프리 만화가로 전향
- 1961년— 『손바닥을 태양에』 작사 (이즈미 다쿠 작곡)
- 1966년— 시집 『사랑하는 노래』를 야마나시 실크센터(현 산리오)에서 출판
- 1967년— 네 칸 만화 『보오 씨』로 주간 아사히 만화상 수상
- 1973년— 시와 그림과 만화의 잡지 『시와 메르헨』(산리오) 창간. 다음 해부터 월간지로 바꿈('73-03'). 프레벨관의 월간 그림책 『유아/어린이용 이야기 그림책』에 『호빵맨』을 게재
- 1988년— 일본 TV 계열에서 TV 애니메이션 「날아라 호빵맨」 방송개시
- 1990년— (호빵맨) 제19회 일본 만화가협회상 대상
- 1991년— 훈4등서보장(勳四等瑞宝章) 수상
- 1994년— 고치현 가미군 가호쿠초(현 가미시) 명예시민
- 1995년— (호빵맨) 제24회 일본만화가협회상 문부 장관상
- 1996년— (야나세 다카시 기념관 호빵맨 박물관) 개관
- 1998년— (야나세 다카시 기념관 시와 메르헨 그림책관) 개관
- 2009년— 『날아라 호빵맨』 단독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등장 캐릭터 수(1,768명)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었다
- 2011년— 고치현 명예현민 표창
- 2013년— 10월 13일 별세(향년 94세)
- 2014년— 야나세 다카시와 부인이 잠든 (야나세 다카시 호오노키 공원) 완성

